

■ 주요 뉴스: 美 중부사령부 이란 미사일 시설 타격, 이스라엘-레바논 평화합의안 서명

- 미국, EU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강행 시 관세 부과 경고
-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, 연내 한 번의 금리인상 필요 주장
- 국제유가, 호르무즈 해협 통항 증가와 사우디 선적 재개로 큰 폭 하락
- 중국,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'성의'가 부족하다며 EU에 반격 시사
- 유럽 폭염, 서유럽에서 중부 유럽으로 확산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 주가 약세[-0.1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하락[-2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오픈AI의 기업공개 연기 검토로 기술주 중심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도 기술주 매도세로 0.7% 하락
- 환율: 달러화는 유가 하락에 따른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 등으로 약세
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 가치는 0.03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여 하락
독일 10년물 금리도 1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종가 1535.8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536.4원, 0.29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6/26일	전일대비			6/2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7,354.0	-0.05%	국채 금리 10y	미국	4.37%	-2bp
	유럽	635.88	-0.68%		독일	2.85%	-1bp
	일본	69,361	-4.15%		일본	2.62%	-1bp
	한국	8,411.2	-5.81%	CDS	한국	23bp	+1bp
환율	달러지수	101.36	-0.07%	위험 지표	VIX	18.41	-2.54%
	유로화	1.1384	+0.12%		브렌트유	71.99	-4.34%
	엔화	161.74	+0.03%	원자재	금	4,088.7	+1.54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600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환율은 +(-)는 강세(약세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美 중부사령부 이란 미사일 시설 타격, 이스라엘-레바논 평화 합의안 서명 등

- 중부사령부는 26일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발표. 이번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.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란의 선박 공격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시사한 바 있음
- 이란의 경고와 화물선 피격에도 불구하고 25일 42척, 26일 29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. 국제해사기구(IMO)는 선박 및 선원 철수 계획에 착수한 지난 23일 이후 선박 115척, 선원 2,500명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 나왔다고 발표
-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DC에서 이스라엘-헤즈볼라 간의 무력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합의안에 서명.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는 이날 합의를 양국의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
-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내 사건을 방지하고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제 5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-이란 간 통신선을 구축했다고 발표
-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협의 오염 제거나 선박의 안전한 항행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외신 보도. 외신은, 다만 오만이 이러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부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, EU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강행 시 관세 부과 경고

-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를 조만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고,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%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
- EU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실제로 관세를 물릴 경우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응수

■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, 연내 한 번의 금리인상 필요 주장

- 카시카리 총재는 중동에서의 전쟁 및 다른 요인들과 연계돼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경제가 계속 타격을 입고 있다며 올해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, 지난 3월에는 연내 한 번의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이제는 연말까지 한 번의 인상으로 바꿨다고 언급

■ 국제유가, 호르무즈 해협 통항 증가와 사우디 선적 재개로 큰 폭 하락

- 뉴욕상업거래소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\$69.23으로 전일 대비 3.7% 하락하며 전쟁 이후 처음으로 \$70 하회.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수송량이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공급부족 우려가 빠르게 완화된 덕분
- 사우디 국영석유사인 아람코가 걸프만의 라스타누라항에서 원유 선적을 재개했다는 로이터 보도도 유가 하락에 일조

■ 중국,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'성의'가 부족하다며 EU에 반격 시사

-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EU는 한편으로 중국과 대화하기를 원하면서, 다른 한편으로 문제를 해결할 성의가 부족하고, 심지어 더 많은 무역 제한 조치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며 양측의 무역 갈등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

■ 유럽 폭염, 서유럽에서 중부 유럽으로 확산

- 독일 기상청은 26일 프랑스와의 국경 부근 등 서부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발표. 28일에는 동부 일부 지역의 기온도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. 스위스도 이틀 연속 6월 최고기온을 경신
- 벨기에, 네덜란드, 영국, 프랑스 등 서유럽 폭염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증가

■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(확정치) 49.5로 전월(44.8) 대비 개선세 뚜렷

- 휘발유 가격 하락이 소비심리 회복을 견인. 다만 소비심리 자체는 이란 분쟁 전인 올해 2월보다 13%, 1년 전보다 거의 20% 낮은 수준

■ S&P, 미국 신용등급 'AA+'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'안정적' 부여

- S&P는 미국 경제의 회복력은 지속적인 관세수입을 포함한 견조한 재정수입 확보를 뒷받침하고, 향후 몇 년 동안 재정적자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언급. 향후 몇 년 간 재정적자가 높기는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